

보육시설 학대 소녀들 못지킨 국가인권위

법적 효력 없는 권고 조치 뒤 이행 여부 등 후속조치는 무관심

보육원생들 보호는커녕 내부 밀고자 지목 등 2차 피해 호소

인권위 “고발 사안 아니라 판단”...전문가들 “112 신고 의무화”를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받은 ‘고아 소녀들’<광주일보 2018년 9월27일자 6면>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소극적인 조치로 2차 피해까지 겪은 것으로 드러나 대응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가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고아소녀들이 학대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 조치가 아닌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 조치만을 내린 뒤 개선 여부 등 후속 조치에는 무관심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보육시설에서 학대를 받은 ‘고아소녀’들은 인권위 조치 이후 보호는커녕 오히려 ‘내부 밀고자’로 지목 받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YWVA 산하 보육시설에서 허락없이 쌍꺼풀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육원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하지만 당시 진정을 낸 당사자가 갑자기 조사를 거부하

는 바람에 조사를 중단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후 인권위는 같은해 12월 한 민간공익단체로부터 해당 보육시설의 원장 및 직원들의 폭언, 강제 입원 시도 등 인권침해 사례를 다시 제보받았으며, 지난 1월에야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학대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지 6개월여가 지나서야 첫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보육시설의 보육원생 학대 행위를 확인했으며, 지난 7월 광주시와 광주 YWCA에 해당 원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와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권고 결정문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선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결정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등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내부 소의원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이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권고 조치만 내렸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권위 권고 이후 언론(광주일보)에서 해당 보육원생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사태 심각성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피해 원생을 접촉·조사하는 한편 해당 보육시설을 방문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인권위 같은 공공기관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아동학대의 신고 또는 제보 등을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112에 신고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직업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인 시설종사자와 의료인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112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길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인권위 등 공공기관은 112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특히 인권위법상 권고에 대한 강제력·구속력이 없어 행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이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사항의 불수용에 대해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 뿐이다.

인권위는 특히 권고에 따른 신고자 등의 2차 피해 예방 등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닌 해당 자치단체나 시설 등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에도 딱히 달라진 것은 없다.

윤재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인권위는 권고 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며, 권고조치 이후 수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보육시설 원장은 “시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강제입원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아이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정말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제대로 인권위에 소명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이번 일로 노출돼 또 다른 피해를 받을까 우려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피고인 연락 안된다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

대법 “위법...다시 재판하라”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주소지와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것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변론을 진행하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소송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게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온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는 등 소재파악을 시도해 봤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 없이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2012년 공사 하청업체 여러 곳에 건축공사를 발주한 후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수능 30일 앞두고 모의고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6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원교사가 세살배기 원생들 학대 의혹...경찰 수사

광주 광산경찰은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광주지역 한 학원교사 A(여·2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세 살짜리 원생 3명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집으로 돌아와 이상 행동을 보인 아이들이 각각 부모에게 ‘선생님이 입을 때렸다’,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들은 지난 13일 경찰에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지도한 원생들은 모두 6명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원은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학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아동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꼬리무는 의혹들...경찰조사 차장한 목포 학부모 진술 보니

“심화반 다른 학생이 유출문제 본 것 목격 우리 애들이 이런일 한두번 아니라고 했다”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된 목포 A사립고 시험관리를 둘러싼 의혹이 붓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이 이번 중간고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의혹(광주일보 2018년 10월 16일자 7면)과 함께 16일에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시험문제 유출이 한 번이 아니라 최소 2차례 있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16일 목포경찰과 목포A고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 B씨와 학생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교와 경찰측에 시험문제 부정 취득 사실을 자백한 C군 외에 다른 학생이 시험문제 원안이 담긴 A4 용지를 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학생과 학부모는 경찰에서 “학교 별관 심화반 자습실 그 친구 책상을 우연히 봤는데 A4 용지 2장, 양면에 영어시험 문제로 보이는 문제가 적혀 있었다”며 “최초 시험문제를 유출한 C군이 다른 학생들과 돌려봤거나 그 친구 역시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별도로 시험문제 원안을 출력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군에게서 확보한 문서를 검

토한 후 대체적으로 제보 학생, 학부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4 용지 2장으로 된 유출본 앞 뒷면에는 영어 주관식 3 문제, 객관식 8 문제가 적혀있었는데, 이 중 10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됐다고 전하면서 “시험문제 유출이 2차례 이상 있었는지, 학생들이 돌려본 것을 그 학생이 착각한 것인지 둘 중 하나 인데 수사 초기라 단정 짓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학부모는 경찰에서 “저희 애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시험문제 유출이 처음이 아니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학부모가 A사립고에 자녀 2명을 보내고 있다는 점, 자칫 뒤따를지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고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경찰 조사를 자청했다는 점에서 학교, 경찰 일각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의혹이 꼬리무는 불을 타 별도로 시험문제 원안을 출력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해남서 열릴 무기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

법원, 관할 이송신청은 불허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여·41)씨의 재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변호인은 재심 관할 재판부 역시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법원은 일단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대

해서는 재판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송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김신혜씨가 청구여과도소에서 장흥교도소로 이감돼 청구지법이 현재지가 아닌 상항”이라면서 “장흥지원으로 이송해달라는 것도 아니어서 이송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자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주대 의료진 “이재명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 없어”



○-의료기관 신체검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큰 점이 없고, 수술 등을 한 흔적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16일 “(여배우 김부선씨와 작가 공지영씨)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

는다”며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고 신체검증 결과를 발표.

○-이 지사가 자진해서 이뤄진 이날 신체검증에는 아주대병원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1명씩 참여했으며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오후 4시 5분부터 12분까지 7분간 진행. /연합뉴스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박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에설치료학과(D.C.S.)	15
		통합에설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추후 공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